

대학생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복지감

박미석, 장진경, 손서희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Online and Offline 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Mee Sok Park, Jin Kyung Chang, Seohee Son
Dept. of Family & Resource Management, Sookmyung Wome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울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23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은 우울과 행복으로 각각 측정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연계형 및 결속형)을 독립변인으로 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대학생의 우울을 예측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을 함께 투입한 결과, 성별, 주관적 경제만족도, 오프라인 연계형 사회적 자본만이 대학생의 우울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행복을 예측하는데 있어 주관적 경제만족도와 오프라인 연계형 및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을 함께 고려하였을 경우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만이 대학생의 우울과 행복과 같은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함께 본 연구 결과의 시사점 및 정책적 제언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 자본, 심리적 복지감, 오프라인, 온라인, 우울, 행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online and offline 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Data came from 236 university students who attended 4-year universities in Seoul and had used Social Network Serv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only offline social capital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to predict psychological well-being including depression and happiness when both online and offline social capital variables were entered. In detail, the university students' depression was associated with their gender, satisfaction with their economic status, and offline bridging social capital. In addition the students' happiness was associated with their satisfaction with their economic status, offline bridging, and bonding social capita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ffline social capital is more important for improving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compared to online social capital.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ing psychological well-being of university students are discussed.

Key Words : Social Capital, Psychological Well-being, Offline, Online, Depression, Happiness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교내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1-1503-0106).

Received 27 September 2017, Revised 27 October 2017
Accepted 20 November 2017, Published 28 November 2017
Corresponding Author: Seohee S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Email: sson@sm.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유례없이 심각한 청년 취업난에 따라 오늘날의 청년들은 연애, 결혼, 출산 등 삶의 여러 기회를 포기하는 'N포 세대'로 일컬어지는 등 불안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청년들의 부정적 현실 인식은 세대별 우울 증상 경험 비율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주요 우울장애의 경우 20대가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일년유병율이 높았고, 혼인 상태 및 취업상태가 우울장애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1].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들의 심리적 복지감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는 것은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에 있어 중요한 일이다.

청년기는 부모로부터 심리·정서적으로 독립하여 새롭고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친밀감을 획득하는 심리사회적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2]. 최근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사람들 간의 관계를 형성 및 유지 방법이 더욱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형성하는 인간관계가 청년기의 심리사회적 발달과업 수행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경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SNS 이용률이 분석 보고서[5]에 따르면, 20대의 SNS 이용률은 75.6%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루 평균 SNS 이용 시간이 80분에 이르러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이용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SNS는 20대의 생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20대 청년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대한 이해에 있어 SNS의 역할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SNS는 개인이 자신의 프로필을 구성하고 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웹 기반의 서비스로[4] 사람들은 SNS를 통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과 자신의 소식을 공유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이들과 개인의 관심사, 정치적 견해, 정보 등을 공유하기도 한다. 즉 SNS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사회적 관계 유지 및 확장 네트워크로써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2,4].

SNS를 통한 관계 형성이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을 통해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6].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행복이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 등의 심리적 복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8,9,10]. Coleman은 사회적 자본을 사람들 간의 관계를 통해 축적한 자원으로 정의하였다[10]. 즉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는 애정적인 유대를 가져오며, 정서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11]. 따라서 풍부한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한편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관계 맺음 유형에 따라 연계형 사회적 자본(bridging social capital)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으로 구분하였다[11].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사회인구학적 배경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일시적이고 얇고 넓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서로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새로운 정보나 자원을 접할 기회를 확대할 수 있지만, 심리적 지지와 같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같이 유사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밀접하고 강한 교류를 형성하고 서로에게 심리적 지지나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특징을 갖는다.

지금까지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는 오프라인 상에서 형성된 관계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SNS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들은 SNS가 관계와 상호작용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이 축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3, 10,12]. 트위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13]에서는 트위터 이용 강도는 연계형 및 결속형 사회적 자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트위터를 이용한 의사소통은 이용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강화시켜 그들 간의 관계 발전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Ellison과 동료들[10]은 페이스북 이용이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도움이 되며, 페이스북과 같은 SNS 이용자들의 상당수는 기존 오프라인에서 형성한 관계와의 소통을 위해 SNS를 사용함으로써 온라인에서 맺는 인간관계는 오프라인에서 맺는 인간관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10]. 또한 대학생의 소셜미디어 이용 동기와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14]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교환과 관계 맺기의 동기가 높을수록 연계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셜미디어의 이용이 사회적 자본 확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개인의 자아존중

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이 SNS 이용과 사회적 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들은 페이스북을 보다 많이 이용하면서 연계형 사회적 자본을 증대하였다[10]. 국내 연구에서도 대학생의 부정적 심리상태가 온라인에서의 관계 형성을 촉진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15]. 반면, 트위터 이용자의 경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효율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오프라인에서 형성한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고한 다수의 선행연구와 달리[7,8,9,10],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온라인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형성한 사회적 자본과 개인의 심리적 특성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그 연구 결과 또한 일치하지 않는다[7,8,9,10]. 소셜미디어와 정신건강 간의 관계를 연구한 금희조[16]의 연구에 따르면, 소셜미디어 상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정서적 웰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정서적 웰빙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심리적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정서적 안정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와 함께 사회적 자본과 SNS 이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15]는 현실에서 약한 유대를 갖고 있는 집단에서 SNS를 주로 이용함을 보고하였다.

반면 SNS를 통해 형성한 사회적 자본이 개인의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소영과 조성희[18]는 온라인에서 형성한 연계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대학생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대학생이 형성한 온라인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관계, 대인 간 커뮤니케이션, 일상생활에서의 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19]. 이상의 선행연구 고찰을 고려할 때, 온라인 사회적 자본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온라인 사회적 자본 형성과 관련된 요인, 온라인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 등을 살펴봐왔으나, 온라인 사회적 자본과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을 함께 고려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

에 대한 상반된 연구결과는 온라인에서 형성한 관계가 오프라인에서 형성한 관계와 연결되어 있음[10,15]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에서 형성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고려 없이 온라인 사회적 자본만을 살펴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관계 형성 및 유지가 빈번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형성한 사회적 자본을 비교하고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복지감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시의적절한 연구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대 청년들의 심리적 복지감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인 사회적 자본 형성에 있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역할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즉, SNS를 이용하고 있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사회적 자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자본을 연계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심리적 복지감의 긍정적 측면은 자아존중감, 긍정적 정서, 행복, 생활만족도 등으로 측정해왔고, 부정적 측면은 우울, 불안 등으로 측정하고 있다[20].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을 부정적인 감정 상태인 우울과 긍정적인 감정 상태인 행복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는 20대 대학생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형성한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연계형 및 결속형) 및 심리적 복지감(우울 및 행복)의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우울 및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사회인구학적 특성, 온라인 연계형 및 결속형 사회적 자본, 오프라인 연계형 및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SNS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사회적 자본 형성 수준과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 및 심리적 복지감 향상을 위한 SNS의 역할을 가늠하고, 대학생의 심

리적 복지 향상 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것이다.

2. 연구방법

2.1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이용에 따른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 형성의 특성 및 심리적 복지감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20대의 SNS 이용률이 가장 높다는 점[5]에 근거하여 대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에 참여한 대학생 중 SNS를 전혀 사용하지 않다고 응답한 대학생을 제외한 236명의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설문에 참여한 대학생의 평균 연령은 23세였다(범위: 20세 - 29세). 총 236명의 참여 대학생 중 여학생이 60.2%를 차지하였으며, 남학생이 39.8%를 차지하였다. 전공계열은 사회계열이 67명(28.4%)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연과학 및 이공계열(22.9%), 상경계열(20.8%), 인문계열(20.3%), 예술계열(7.6%)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N = 236)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M/n	SD/%
Age (range 20 - 29)		23.47	2.08
Gender	Male	94	39.8
	Female	142	60.2
Major	Liberal arts	48	20.3
	Social science	67	28.4
	Science and engineering	54	22.9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49	20.8
	Music and art	18	7.6

2.2 연구도구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은 우울과 행복감으로 측정하였다. 우선 우울은 Zung의 자기평가 우울척도(Self-Rating Depression Scale)를 사용하

였으며 '나는 기운이 없고 우울하다' 등의 20개의 문항으로 구성[21]되었다. 응답범위는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4점까지로 전체 문항의 산술평균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Cronbach's $\alpha = .85$). 행복은 '현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의 단일문항으로 '매우 불행' 1점에서 '매우 행복'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성별, 연령, 주관적 경제 만족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을 포함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은 0, '여학생'은 1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연령과 주관적 경제 만족도는 연속 변수로 사용하였다. 주관적 경제만족도는 '현재 경제적 상태에 대한 만족 수준은 어떠합니까?'라는 단일 문항을 이용하여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 5점으로 구성하였다. 사회적 자본은 Williams[11]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연계형 및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각각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 연계형 사회적 자본과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각각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평소 내가 관심 갖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흥미를 갖게 한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은 내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싶도록 만든다' 등의 10 문항으로 구성되었다(온라인 연계형 사회적 자본 Cronbach's $\alpha = .91$, 오프라인 연계형 사회적 자본 Cronbach's $\alpha = .86$).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예시 문항을 살펴보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나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사람이 몇 명 있다,'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내가 외롭다고 느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 등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온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 Cronbach's $\alpha = .86$,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 Cronbach's $\alpha = .81$).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응답범위로 측정하였으며, 각각 10문항의 평균을 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 형성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3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SPSS 2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신뢰도 분석,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와 VIF 계수를 살펴본 결과, 다

중공선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 우울 및 행복의 전반적인 경향

대학생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 우울 및 행복의 전반적 경향은 아래 <Table 2>와 같다. 대학생이 인식한 온라인에서의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평균 3.07점 ($SD = .87$)으로 중간 수준이었으며(범위: 1 - 5),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평균 2.66점($SD = .81$)으로 중간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반면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은 중간 이상 수준으로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평균 3.52점($SD = .65$),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평균 3.60점($SD = .67$)으로 나타났다. 즉, 본 조사 대상자들은 오프라인에서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오프라인 연계형 사회적 자본, 온라인 연계형 사회적 자본, 온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 순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의 심리적 복지감으로 우울과 행복을 측정한 결과, 우울은 평균 2.60점($SD = .41$)으로 중간 수준(범위: 1 - 4)이었으며, 행복은 평균 3.59점($SD = .71$)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범위: 1 - 5)이었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 = 236$)

Variables	M	SD
Online Social Capital		
Bridging Social Capital	3.07	.87
Bonding Social Capital	2.66	.81
Offline Social Capital		
Bridging Social Capital	3.52	.65
Bonding Social Capital	3.60	.67
Depression	2.60	.41
Happiness	3.59	.71

3.2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복지감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 중 우울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는 아래 <Table 3>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모델 1에서는 대학생의 우울을 예측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온라인 사회적 자본을 투입하였다. 그 결과 우울은 성

별($\beta = .23, p < .01$), 주관적 경제만족도($\beta = -.29, p < .001$), 온라인의 연계형 사회적 자본($\beta = -.17, p < .05$), 온라인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beta = .20, p < .01$)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관련되었다($R^2 = .14$). 즉,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주관적 경제만족도가 낮을수록, 온라인에서의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 낮을수록, 온라인에서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Model 2에서 온라인 사회적 자본과 함께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을 함께 투입한 결과, 대학생의 우울은 성별($\beta = .29, p < .001$), 주관적 경제만족도($\beta = -.29, p < .001$), 오프라인의 연계형 사회적 자본($\beta = -.25, p < .001$)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2 = .22$).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주관적 경제만족도가 낮을수록, 오프라인에서의 연계형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형성한 사회적 자본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온라인에서 형성한 사회적 자본은 더 이상 유의미한 변수가 아니었다.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Predicting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N = 236$)

Variable	Model 1			Model 2		
	B	SE B	β	B	SE B	β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Female = 1)	.19	.06	.23**	.24	.06	.29***
Age	.01	.14	.07	.02	.01	.07
Satisfaction with economic status	-.13	.03	-.29***	-.13	.03	-.29***
Online Social Capital						
Bridging social capital	-.08	.04	-.17*	-.03	.04	-.07
Bonding social capital	.10	.04	.20**	.06	.04	.13
Offline Social Capital						
Bridging social capital				-.16	.04	-.25***
Bonding social capital				-.07	.04	-.12
Constant	2.38***			3.26***		
R^2			.14			.22
R^2 Change						.08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대학생의 행복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는 <Table 4>에 제시되었다. 우선 모델 1에서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온라인 사회적 자본을 투입했을 경우, 주관적 경제만족도($\beta = .37, p < .001$)와 온라인에서 형성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beta = -.16, p < .0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조사되었다($R^2 = .16$). 즉, 대학생이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온라인에서 형성한 결속형 사회적 자본 수준이 낮을수록 행복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형성한 사회적 자본을 투입한 결과, 대학생의 주관적 경제만족도($\beta = .36, p < .001$), 오프라인의 연계형($\beta = .14, p < .05$) 및 결속형($\beta = .20, p < .01$) 사회적 자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조사되었다(Model 2 참조). 즉, 대학생이 인식하는 주관적 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형성한 연계형 및 결속형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들의 행복 수준이 높은 것이다($R^2 = .23$). 앞서 살펴본 우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사회적 자본과 함께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을 고려했을 때, 대학생의 행복을 예측하는데 있어 온라인에서 형성한 사회적 자본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Hierarchical Regression Predicting Happiness of University Students (N = 236)

Variable	Model 1			Model 2		
	B	SE B	β	B	SE B	β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 (Female = 1)	-.06	.10	-.04	-.13	.10	-.09
Age	.03	.02	.10	.04	.02	-.11
Satisfaction with economic status	.29	.05	.37***	.29	.05	.36***
Online Social Capital						
Bridging social capital	.12	.06	.14	.05	.06	.06
Bonding social capital	-.14	.06	-.16*	-.07	.06	-.07
Offline Social Capital						
Bridging social capital				.16	.07	.14*
Bonding social capital				.22	.07	.20**
Constant	2.04**			.76		
R^2	.16			.23		
R^2 Change				.07		

* $p < .05$, ** $p < .01$, *** $p < .001$

4. 결론

본 연구는 서울 지역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이며 SNS를 사용하고 있는 대학생 23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은 오프라인에서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가장 높았고, 전반적으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SNS 사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자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형성하는 사회적 자본 수준이 더 높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을 우울과 행복으로 측정된 결과,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의 우울은 중간 수준이었으며, 행복은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우울 및 행복과 같은 심리적 복지감은 성별, 주관적 경제만족도, 오프라인의 연계형 및 결속형 사회적 자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대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성별과 주관적 경제만족도가 심리적 복지감과 관련되었는데,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우울 수준이 높았으며, 주관적 경제만족도가 높을수록 우울은 낮고, 행복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18]와 일치하였다. 특히 대학생의 주관적 경제만족도가 우울 및 행복을 예측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고려할 때, 대학생의 사회적 자본 형성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 경제적 안정감이 기반이 될 때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들에게 교육, 직업훈련, 주거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할 때 청년들의 고용률이 높아지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시기도 빠르다는 서구의 연구결과[22]를 고려할 때, 취업난을 경험하고 있는 대학생들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과 건강한 독립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과 우울 및 행복 간의 관계를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온라인 사회적 자본만을 고려하였을 경우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 높을 경우 우울은 낮았으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행복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온라인 연계형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18]를 일부 지지하나, 온라인에서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정서적 안녕이 높고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부적 관계를 갖는다는 연구결과[16,17]와 상반된 결과이다. 온라인에서의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고, 행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온라인에서 형성한 강한 결속감이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나타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온라인에서의 사회적 자본 형성이 대학생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오프라인에서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쉽게 빠져들 수 있음을 고려할 때[10], 현실 세계에서 인간관계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온라인 활동에 과도하게 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23]. 따라서 대학의 학생상담소에서는 대학생들이 온라인을 건강하게 활용하고, 온라인 활동이 온라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인간관계 훈련을 제공하는 등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지지가 SNS 과몰입에서 오는 부정적 효과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2] 가족관계 향상 및 가족건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와 선행연구들 간의 상반된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온라인 사회적 자본의 유형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반면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을 예측하는데 있어 온라인 사회적 자본과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을 함께 고려하였을 경우, 온라인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만이 우울과 행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NS를 통한 관계 맺음이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형성한 사회적 자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형성한 사회적 자본이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에 있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프라인의 연계형 사회적 자본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낮은 반면, 오프라인의 연계형 및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행복 수

준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프라인에서의 연계형 사회적 자본은 대학생의 우울과 행복 모두와 관련되어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한편 대학생의 행복을 예측함에 있어서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이 연계형 사회적 자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오프라인 결속형 사회적 자본이 어느 정도 확보된 집단이 다른 유형보다 안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8,18]. 따라서 오프라인에서 단순한 관계의 확장보다는 서로의 신뢰감을 바탕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강한 유대감을 지닌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대학생의 행복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선행연구[10]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이 낮은 학생들이 SNS 사용을 통해 연계형 사회적 자본을 증대하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을 고려할 때, 온라인을 통한 관계 형성은 오프라인 관계의 보조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대학생의 우울 감소나 행복 향상에 기여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 온라인에 대한 의존이 커질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이들이 오프라인에서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연계형 및 결속형 사회적 자본을 세분화해 각각의 영역에서의 사회적 자본과 대학생의 우울 및 행복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는 서울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확률표집의 편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사회적 자본을 함께 살펴본 선행연구[8,16,17]의 대부분이 편의표집을 통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연구 결과 또한 일치하지 않으므로 후속 연구에 패널 자료를 활용하거나 확률표집을 통해 다양한 특성의 20대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SNS 이용 및 의존 정도, 폐쇄형 및 개방형과 같은 SNS 유형 등 SNS의 특성에 따라 사회적 자본 형성 및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3,12]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SNS 이용 특성[24]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네트워크의 특성을 고려한 심도 깊은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사

회적 자본이라는 독립변수의 직접효과만을 분석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같은 개인의 심리 특성 변수에 대한 고려 및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회적 자본과 심리적 복지감 간의 심층적인 이해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심리적 복지감에 있어 오프라인에서 형성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Sookmyung Women's University Research Grants (1-1503-0106).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survey of mental disorders in Kore." 2007.
- [2] K. Hong, & H. Jean,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students' SNS addiction tendency and their interpersonal problem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7, No. pp. 34-67, 2017.
- [3] C. Lee, & N. Jung,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and motive on social capital: Comparison of open/closed social media."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 Information*, Vol, 65, pp. 5-26, 2014.
- [4] D. M. boyd, & N. B. Ellison, "Social network sites: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3, pp. 210-230, 2008.
- [5] Y. Kim, "Analysis on SNS usage trend and usage behavior." *KISDI Stat Report*, Vol. 16, Npio. 7, pp. 1-9, 2016.
- [6] S. Ko, B. Hwang, & Y. Ji. "A study on social network service and online social capital: Focusing on a Korean and Chinese case."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Vol. 15, No. 1, pp. 103-118, 2010.
- [7] G. Kim,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mpacts of online and offline social capital on happiness: Focusing on the undergraduate students."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ol. 20, No. 3, pp. 87-113, 2016.
- [8] Y. Lee, & E. Ya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on online/offline and psycho-socia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2, No. 9, pp. 79-109, 2015.
- [9] S. Yeom, & Y. Choi,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in family on adolescents' depress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4, No. 9, pp. 255-266, 2014.
- [10] N. B. Ellison, C. Steinfield, & C. Lampe,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Social capital and college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 system."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2, pp. 1143-1168, 2007.
- [11] D. Williams, "On and of the 'net: Scales for social capital in an online era."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Vol. 11, pp. 593-628, 2006.
- [12] Y. Choi, & S. Park, "The effects of social media usage on social capital."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5, No. 2, pp. 241-276, 2011.
- [13] H. Shim, & Y. Hwang, "The relationship between micro-blogging service and social capital among the early adopters of Twitter."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 54, No. 5, pp. 327-347, 2010.
- [14] J. Park, & D. Kim, "Effect of social media use motive and credibility on social capital."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19, No. 1, pp. 207-219, 2014.
- [15] M. Min, & S. Park, "Effects of perceived social capital on relational uses of social network sites." *Speech & Communication*, Vol. 22, pp. 101-130, 2013.
- [16] H. Keum,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use on social capit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Vol. 25, No. 5, pp. 7-48, 2011.

- [17] S. You, J. Lee, & Y. Choi, "The influence of perceived social capital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Facebook: The mediated moderation effect of self-esteem by self-disclosure." Korean Journal of Consumer and Advertising Psychology, Vol. 18, No. 2, pp. 117-150, 2017.
- [18] S. Park, & S. Cho, S. "Formation of social relationship through SNS and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 371-379, 2015.
- [19] M. Kwon, & K. Lee, "The effects of self-disclosure on online social capital and subjective well-being in online network service."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Vol. 28, No. 5, pp. 1485-1503, 2015.
- [20] J. Lee, "Study on affections of the education for the elderly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 thesis, Kyonggi University, 2006.
- [21] Y. Lee, & J. Song, "A study of the reliability and the validity of the BDI, SDS, and MMPI-D scales."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10, No. 1, pp. 98-113, 1991.
- [22] O. Thévenon, "Aid policies for young people in Europe and the OECD countries." Families and Societies, 2015.
- [23] M. Nam, H. Kim, & Y. Kwon,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mart phone addiction, suicidal ideation among collag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1, No. 10, pp. 557-569, 2013.
- [24] H. Shin, & K. Kim, "The differences in motivation and usage according to morphological evolution of S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5, No. 6, pp. 155-164, 2017.

박 미 석(Park, Mee Sok)



- 1981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사)
- 1992년 2월 : Michigan State University, Family and Child Ecology(Ph. D.)
- 1995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자원관리, 삶의 질
- E-Mail : msp@sm.ac.kr

장 진 경(Chang, Jin Kyung)



- 1986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가정관리학과(문학사)
- 1993년 8월 : Florida State University(Ph. D.)
- 1997년 9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가족치료/가족생활교육
- E-Mail : jinkyung@sm.ac.kr

손 서 희(Son, Seohee)



- 2002년 2월 :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문학사)
- 2010년 8월 : University of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Ph. D.)
- 2012년 3월 ~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가족자원경영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일-가정양립, 맞벌이가족
- E-Mail : sson@sm.ac.kr